

# 원아 5명 못채워...광주 유치원 12곳 문 닫는다

### 올 초등학교 병설 5곳 폐원·7곳 휴원...출생아 급감 후·폐원 속출 초등학교 입학생 1만명 붕괴 우려...초등학생 2029년 35% 감소 한자릿수 교사 채용·교대 기피 현상 등 '인구 절벽' 부작용 악순환

광주지역 출생률 급감으로 올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5곳이 문을 닫는다. 올해 휴원하는 유치원도 7곳에 달하고 초등학교 입학자 수도 1만명대로 예상되는 등 인구절벽에 따른 악순환이 장기적으로 되풀이 될 전망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중앙초·월곡초, 치평초, 광주동운초, 조봉초병설유치원 등 5곳을 폐원할 계획이다. 이들 유치원 5곳은 2024학년도 유아모집 결과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3년 이상 충족하지 못했다. 향후에도 원아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결

국 폐원을 예고하고 교직원, 학부모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출생아 격감으로 유치원의 휴·폐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광주북초·광주동초·송학초·도산초·운리초·한울초·광주효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1년 동안 휴원한다. 이들 유치원도 1학급 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채우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폐원이 예고된 병설 유치원은 입학희망자가 한 두 명에 그쳐 더 이상 운영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출생률 감

소에 따라 휴·폐원하는 유치원이 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수도 격감하고 있다. 광주 전체 초등학교 입학생수는 2007년 2만4291명에서 2023년 1만258명으로 줄었고 올해도 비슷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의 학생수 추계현황을 보면 전체 초등학생수가 2023년 8만821명에서 오는 2029년이면 5만2394명으로 35.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생이 줄면서 광주에서는 임용 규모가 급감하는 '임용절벽'이 장기화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유치원 교사 3명만을 뽑는데 이어 올해도 한자릿수 채용을 예상하고 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서울의 경우 공립유치원 교사는 아예 1명도 뽑지 않았다. 대전의 경우 유치원 교사 모집인원이 1명, 대구는 4명에 그쳤다. 광주시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사 채용인원이 2년

연속 6명에 그치는 등 수년째 한자릿수에 머물면서 광주교대도 고전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광주교대 중도탈락 학생 143명 중 자퇴는 126명(88.1%)에 달한다. 휴학생도 2021년 27명, 22년 30명, 2023년 44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편, 3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보면 20년 전인 2014학년도(4월 1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65만7017명이었지만, 이후 10년이 지난 2014학년도에는 47만8890명으로 급감했다. 더구나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수가 40만1752명으로 40만명 선에 '턱걸이'했는데, 올해 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2017년생은 출생아 수 자체가 약 35만 7800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 이상 급감했기 때문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배후자 공소장 변경 추가 기소

검찰이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최근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배후자인 30대 남성의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기소를 했다.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작년 9월 13일 살인 등으로 기소한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 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해 살인을 강도살인으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했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갈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31)씨와 C(31)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를 중상을 입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추가 사건을 수사해 A씨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피해자 B·C 씨에게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면서 자신이 정한 생활 규칙 위반에 따른 벌금, 각종 심판비 등 명목으로 4년 9개월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C 씨의 모친인 D씨로부터 민사소송 등 C 씨와 관련한 각종 법률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6억 3000만원을 편취하고 지난해 6월말께부터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피해자 두 명을 자신의 차량에서만 생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키보드 손잡이, 벽돌 등으로 서로 때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살인죄 관련 재판에 추가 사건을 병합 청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재판은 오는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 심리로 열린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22살 어린 전 연인 스토킹 "신체 특징 유포" 모친 협박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22살 연하인 전 여친을 스토킹하고 어머니까지 협박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흥)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8일 오전 8시20분께 전 여자친구인 B(30)씨에게 11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모친 C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 22일 까지 3년 가량 사귀다 헤어진 뒤 B씨에게 영상통화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고 직장에 전화하거나 휴대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B씨가 오인하자 '2년간 더 만나야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 C씨에게는 "딸의 직장동료들에게 신체 특징을 알리겠다", "주변에 22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와 사귀 것을 자랑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 모녀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의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상당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모친까지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해경이 3일 여수시 돌산 앞바다에서 선박 화재 진화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 여수 돌산 앞바다 어선 화재...선원 1명 숨져

여수 돌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불이 나 선원 1명이 숨졌다. 여수해경은 3일 오전 8시 20분께 여수시 돌산 동쪽 약 4.4km 해상에서 FRP(강화플라스틱) 어선 A호(6t급, 승선원 2명)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어선은 완전히 불타 예인 과정에서 침몰

했다. 선원 B(62)씨는 화재 어선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B씨가 화재를 피해 물로 뛰어 들었다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장 C(69)씨는 민간구조선에 의해 구조돼 병

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어망을 걷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관실에서 불이 났다. 불이 선체로 옮겨 불자 진화를 포기하고 바다에 뛰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어선에서 흘러나온 기름뒹 방제작업을 마치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기차 객실서 여성승객 추행 역무원·경찰 폭행 60대 입건

술에 취해 열차 객실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역무원, 경찰 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일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역무원·경찰 등을 폭행한 60대 A씨에 대해 공중 밀집장소 추행·폭행·공무집행 방해·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10분께 군산역 인근을 달리던 장항선 무궁화호 열차에서 열 좌석에 앉은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군산역에서 하차시키려 하자 경찰 역무원·승객 등 6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수 목 장

##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